

생태환경위원회

2026년 창조시기 강론 자료 I (9월 6일)

살아있는 물을 지키는 공동의 책임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리스도교 가족은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를 기념하면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올해 ‘창조시기’의 주제는 바로 “생명수”입니다. 주님께서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당신의 생명수에 온전히 담그도록 초대하십니다.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에게서 오며, 생명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느님의 뜻은 공동 상속자인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1독서에서 우리가 들은 파수꾼의 말씀도, 그리고 이번 창조시기의 주제인 “살아 있는 물”의 말씀도 모두 같은 예언자, 에제키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을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또한 성전 문지방 아래서 흘러나와 점점 깊어지는 강, 사해까지 치유하는 그 살아 있는 물의 환시를 에제키엘에게 보여 주십니다. 파수꾼의 경고와 생명의 강.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경고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파수꾼의 소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에제 33.8).” 이 말씀은 결코 편안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이 평화를 지키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때로 침묵이 곧 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올해 창조시기 안내서는 오늘날의 물 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이 안전한 식수를 구하지 못하고, 지난 50년 동안 담수 생물은 85%나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강과 하천도 오염과 개발과 무관심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창조세계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우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창조시기 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 선물을 한낱 상품처럼 다루어 왔음을 고백하나이다. 쓰레기로 바다를 숨막히게 하고, 뜨거워진 바닷물이 심판하듯 차올라도 지켜보기만 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침묵입니다.

둘째, 사도 바오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로마 13,9-10).”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 사람만이 아닙니다. 창조시기 안내서는 물 위기가 가장 취약한 이들, 곧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가장 크게 피해를 준다고 말합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서 살아가는 농부,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하는 아이들,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섬나라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물 한 방울,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하나가 어딘가에 있는 이웃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창조세계를 향한 사랑 역시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거룩함은 이제 생명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피워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예배는 결코 전례 의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으로, 이웃 사랑으로, 창조세계 돌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단둘이 만나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려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망이 아니라 공동체적 회복의 과정입니다. 창조세계를 향한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창조세계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행동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제키엘의 환시 속 강물은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다음엔 무릎까지, 마침내는 헤엄쳐야 할 만큼 깊어집니다. 우리의 회개와 실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 한 방울을 아끼는 작은 실천에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에서, 침묵하지 않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한다면, 그 작은 물줄기는 언젠가 온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강이 될 것입니다. 사해처럼 죽어 있던 곳에도 생명이 되살아나리라는 그 약속과 책임을,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통해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살아 흐르는 강물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입힌 상처를 낫게 하시고, 정의와 형제애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함께 걷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스러움과 물

미국 서북부와 캐나다 서남부를 가로지르며 컬럼비아강이 흐른다. 2000년대 들어서, 강 유역에는 한 세기에 걸친 무분별한 벌목과 광산 개발, 방목, 댐 건설로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 사례는 연어였다. 연간 약 1,600만 마리에 달했던 연어의 회귀 개체 수가 70만 마리로 급감했다. 지역의 가톨릭 주교들이 『컬럼비아강 유역: 현실과 가능성』이라는 사목서한을 발표하며 위기에 빠진 강의 실상을 알렸다. 주교들은 컬럼비아강 유역을 ‘성사적 공유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성스러움을 복원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성스러움

생명의 물인 세례의 물과 연어가 살아 있는 강물은 하나이다. 이 연결은 성사적이다. 영혼을 구하는 일과 연어를 구하는 일은 똑같이 성사적인 일이다. 성스럽다는 것은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성스러운 것들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존재의 탁월함에 경탄한다. 만약 성스러움을 잃게 될 때는 두려움과 충격에 빠지며, 성스러운 것이 훼손될 때에는 분노하고 모욕감을 느낀다. 성스러움과 만나면, 언제나 강렬한 도덕적 감정이 작동한다. 한강이 파헤쳐지고 수라갯벌이 매립되고 풍천리의 잣나무 숲이 잘려 나갈 광경을 떠올려 보라. 성스러움에 대한 도덕적 감각은 어떻게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만일 지구가 하나의 성사라면, 우리는 지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물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사실은 땅의 행성이 아니라 물의 행성이다. 지구 표면의 74%는 물이며, 물의 97%는 바다이다. 그 바다에서 약 30억 년 전 생명이라는 경이 자체가 처음 출현했다. 30억 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핏속에 흐르고 있다. 피와 눈물 속의 염분은 바다의 염도와 비슷하며, 우리 몸에서 물의 비율은 지구와 거의 같은 70%이다. 더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생명 탄생의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아홉 달을 소금기를 머금은 물속,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신비롭다. 우리는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를 우리 안에 간직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또한 바다를 호흡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은 바다의 한 식물 덕분이다. 공기의 상당 부분을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 낸다. 이들은 태양을 ‘먹는’ 방법을 아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고, 광합성을 통해 태양 빛을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자연이라는 생명의 ‘복지 체계’에 의존하는 모든 존재에게 먹이를 공급할 뿐 아니라, 숨 쉬는 데 필요한 산소와 수증기를 대기로 방출한다.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들이마시고, 바다가 내쉬는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신다. 우리가 숨 쉬듯 지구도 숨을 쉰다. 바다가 기능을 잃으면 우리도 사라진다.

물의 현재

2024년 전 세계 담수 취수량은 4,300km³에 이른다. 1950년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늘어났고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UN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4』, 10). 그런데도 ‘21억 명은 여전히 안전한 식수를 구하기 어렵고, 이는 세계 인구 4명 중 1명에 해당’한다. 기후변화와 물 부족으로 ‘지난 50년 사이 담수 개체군은 무려 85%, 해양 개체군은 56%나 감소’했다(『2026년 창조 시기 기념 안내서』, 14). 인간은 담수의 거의 절반을 소비하며, 나머지 절반으로 생물권 전체가 사용한다. 가난한 이들, 미래 세대, 그리고 나머지 생물권은 이런 과잉으로 정당한 몫을 빼앗기고 있다.

사실, 우리가 물을 소비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먼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2,9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생수 한 병은 수도물보다 2,0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생수 한 병에서 1/4은 석유를 소비하는 셈이니 실제로는 그만큼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물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물을 변화시키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상태를 바꾼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물과의 상호작용이며, 그 과정에서 지구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킨다. 기후변화의 핵심 매개체는 물이다. 특히 바다의 온도가 대기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양 온난화는 물 순환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습한 지역은 더욱 습하게, 건조한 지역은 더욱 메마르게 만들고 있다.

물 순환과 같은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평균기온이 1~2도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전혀 새로운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며, 그 결과는 처음의 원인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난다. 생명은 한순간에 균형을 잃고 추락할 수 있다. 인간이 물과 공기에 끼친 변화 때문에 미래는 훨씬 불확실해졌다.

물의 윤리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계가 ‘생명의 그물’로 얽여진 성사라는 자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감각이 없다면, 물과 공기를 윤리적 세계 안으로 불러낼 수 없다. 만일 물조차 성스럽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성스럽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이란 이 세상에 거의 없다. 모든 건강한 윤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먼저 설명한다. 지금 우리에게 물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 물은 세계 경제의 무질서한 성장에 봉사하는 자원이며 상품이다. 플라스틱에 담겨 쌓여 있는 물이나 데이터센터로 들어가는 용수는 상품이자 자원이지만, 성사적 존재가 아니다. 성스러움의 의미를 상실하면 우리의 윤리 감각도 변한다. 물은 그저 물일 뿐이다!

그러나 성사적 감각은 전체를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자 은총이다. 물은 단지 기술과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물은 인간이 만든 세계를 위한 자원만이 아니라, 신비가 드러나는 매개체이다.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다. 물은 경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놀라움과 아름다움 앞에서 성사적 경외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이다. 인간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는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와 강, 땅과 공기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화된 세계를 성스러움과 다시 만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창조 세계의 회복이다.

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신을 ‘성사로서의 세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신뢰’의 마음으로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다. 경제와 기술의 폭력적인 발전으로 인간이 지구 생명의 자연스러운 규모와 리듬으로부터 소외된 시대에, ‘성사적 세계’에 대한 각성이 ‘창조 시기’의 소명일 것이다.

‘살아 있는 물’과 ‘살아 있는 물에 함께 잠기기’

올해 ‘창조시기’의 주제로 에제키엘서 47장 9절과 12절을 바탕으로 한 ‘살아 있는 물’이 선택됐다. 에제키엘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환시를 본다. 처음에는 발목 정도의 얇은 물이지만, 동쪽으로 흐르면서 점점 깊어져 무릎과 허리를 지나 마침내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된다. 강가에는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물은 매마른 아라바 광야를 지나 ‘바다’, 곧 사해로 들어간다. 그러자 죽음과 불모의 상징이었던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고 물고기가 번성한다.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에제키엘서 47:9)

에제키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시대의 예언자였다.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현존과 공동체의 중심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으로부터 다시 물이 흘러나온다는 환시는 파괴가 마지막이 아니고, 하느님의 현존이 돌아오면 죽음과 황폐의 땅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살아 있는 물’은 단순히 깨끗하게 흐르는 물이라는 뜻을 넘어, 생명을 주고 죽어 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물이라는 뜻이다. 이 물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나오고, 흐를수록 커지며, 죽음의 장소까지 변화시킨다. 따라서 이 환시는 하느님의 생명이 인간 사회와 땅, 물, 동·식물 전체를 새롭게 하는 창조세계의 회복을 나타낸다. 2026년 창조시기가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에제키엘의 환시는 그러나 “하느님께서 언젠가 자연을 고쳐 주실 것이므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2026년 창조시기를 앞두고 에큐메니컬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에서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라는 상징 안에서 함께 하나 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의례적 행동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치유의 흐름 안으로 우리 자신이 직접 들어가 창조세계의 회복의 일부가 되어 이에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교회협의회도 이를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자신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하느님의 강의 일부가 되어 창조세계의 치유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오늘날 그러한 협력은 훼손된 강·습지·숲과 생태계의 복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일으키는 생활양식의 전환,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가난한 공동체와의 연대,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의 생태적 실천과 제도 변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하느님의 창조적 생명력에 잠김에서 나오는 것으로, 신자들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의무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2025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교황담화에서 “예언자들의 선포에 함축되어 있는 환경정의는 사회적·경제적·인간적 정의의 문제로, 믿는 이들에게 이것은 믿음에서 생겨나는 의무”임을 분명히 하셨다.

“물에 함께 잠긴다”는 말도 중요하다. 이는 서로 다른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의 생명 원천에서 만나고, 인간이 다른 생명체 및 생태계와 맺고 있는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며, 창조세계의 치유라는 공동 사명 안에서 연대하는 것을 뜻한다.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총대주교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길 희망할 수 없으며, 희망해서도 안 된다”며,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우리’가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명령이자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창조사기의 맥락에서 ‘살아 있는 물’과 ‘살아 있는 물에 잠기기’는 하느님의 창조적 생명력과 파괴된 생태계의 치유와 복원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인간이 그 회복에 참여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의 의미도 갖는다. 예제키엘의 환시는 절망적인 생태 현실 속에서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이지만, 그 희망은 인간에게 생태적 회개와 실천을 요구하는 행동하는 희망이라고 할 것이다.

창조시기 강론 IV (9월 27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미사를 봉헌하려 갈 때 가능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덥거나 춥거나, 눈이나 비가 오면 위험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자주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날이 좋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시간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차로 이동하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는 으레 “대단하다”고 칭찬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잘 살고 있는 듯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방 교구 한 신부님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이동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동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중간에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오시면서 힘들지는 않았는지 여쭙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전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못하겠으니 나에게 강요하지는 마시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책을 통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을 따라 살겠다는 선택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남들보다 더 착하지도 않고 먹고살기 바쁘고 책임져야 할 자녀들도 있고 그밖에 백 가지 핑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핑계를 찾는 것은 나쁜 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적대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런 적대감은 법이나 정의, 도덕이나 사회 규범 같은 이름으로 정당화되곤 합니다.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과는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은 분리수거 문제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왜 분리수거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분리수거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 분리해도 결국 업체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분리수거 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해 제대로 지키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에게 죄책감만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작은 실천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신 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모두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분리수거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않아도 고맙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마태 13,31)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 담론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실천이 무

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큰 나무로 키워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기꺼이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이익을 초래하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아듣기 힘든 일이고, 이에 대한 실천이 당장 드러나지도 않고 소소하여 이 정도로 정말 괜찮을까 싶더라도 주님의 가르침이기에 기꺼이 행동하는 이들이라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창조시기를 충실히 지내는 이들을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귀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귀하게 지키겠다고 다시 결심하는 창조시기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쁨과 평화

『찬미 받으소서』 222항-227항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행복(εὐδαιμονία)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습니다. 행복이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행복’은 감정적 상태가 아닌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데서 약간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희랍어 행복(εὐδαιμονία)을 직역해 보면 ‘영이 이끄는 좋은 상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대 희랍인들은 인간의 생명을 어떤 ‘영’에 의해서 생겨나고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영’(δαίμονί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좋은’(εὖ) 상태를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생각해도 비슷할 듯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생겨난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육체적 삶은 언제나 피조물에게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건전한 겸손’이 될 것이고, 피조물에게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행복한 절제’일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의 내용은 이 두 기둥인 ‘건전한 겸손’과 ‘행복한 절제’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듯합니다.

『찬미 받으소서』 22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능력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복’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영’이 이끄는 대로 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커졌을 때일 것입니다. 지배하려는 능력을 과신하게 되면, 그곳엔 언제나 파멸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 평화를 잃고 성숙에서 멀어진 상태가 됩니다.

노르웨이의 평화학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전쟁이나 폭력이나 분열이 없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의 상태고, 다른 또 하나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상태”(positive peace)인 적극적 평화입니다. 『찬미 받으소서』가 가르치는 평화는 ‘적극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차분한 태도로 살아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누군가와 온전히 함께할 수 있으며, 순간순간을 하느님의 선물로 여겨 충만하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에 핀 나리꽃과 하늘의 새들을 바라보라고 권유하셨을 때나, 당신께 질문하는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마르 10,21)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러한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과 온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피상적이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인 소비자로 만드는 병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226항)

‘기쁨’과 ‘평화’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성찰해 보아야 할 두 가지 행복의 기둥입니다. 기쁨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데서 온다면, 평화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궁핍한 이들과의 연대’를 기억하며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하느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적 생명이 모든 피조물에게 빛지고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적극적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적극적 평화’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궁핍한 이들과의 연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연대는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찬미 받으소서』의 생태영성은 이 진정한 평화의 길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